

■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제목 : 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

성경: 이사야 62장

Tag:

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,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
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
할 것인즉

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,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
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

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,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
될 것이라

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
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헝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
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
될 것임이라

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
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(사62:1-5)

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.

오늘 아기 예수께서 나셨습니다.

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, 이는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
구원의 선물입니다.

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.

구약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위해 겨냥된 책이다.

구약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사건을 노래하고 예언한 곳이 많은데,
오늘은 이사야서 62장을 읽었습니다.

이 예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메시아,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가
주격이고, 또는 이스라엘 백성, 또는 예루살렘 성, 시온성전, 오늘날
로 해석하면 교회가 그 대격이다.

처녀와 결혼하려는 청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, 처녀는 교회,

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.

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노래한 예언이다. 그런데 그 신부된 처녀를 헵시바, 또는 뿔라라고 부르고 있다. 헵시바는 ‘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’라고 표현할 수 있다. 뿔라는 ‘결혼한 여자’라는 뜻이다. 그런데 그 땅을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겠다는 것이다. 그 땅은 시온이요, 예루살렘을 말한다. (1절)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고,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.

그런데 이 이야기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중에 선포되었다.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아 포로가 되어 이방땅에서 살고 있는 중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다.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고 성전은 무너졌다.

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,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
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
할 것인즉

이스라엘의 범죄로 다윗왕의 후손들을 통한 메시아 대망의 꿈은 무산되는 것 같아 보였다.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범죄함을 모른체 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라도 의가 빛 같이,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셨다. 하나님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.

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,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
여호와와 입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

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다른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. 2절 말씀은 개인적 구원이 아닌, 공동체적 구원, 민족적 구원, 나라와 정치적인 구원을 노래한 구절이다.

-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공의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크시며, 정의

로운 정권에게는 복을 주시고, 불의한 정권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.

-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.

3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관,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

-이 왕관은 메시아가 쓰게 될 아름다운 왕관인데, 이 왕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.

-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이 왕관이다. 즉,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교회라는 뜻이다.

-소망을 잃지 않고, 경건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다는 뜻이다. 바로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예수님의 왕관이다.

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

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(사62:1-5)

4-5절은 이 왕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.

-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. 범죄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지만, 경건함을 잃지 않는 그 후손들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.

-너는 ‘험시바’다. 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.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언의 말씀이다.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역사속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다. 로맨틱한 낭만적 표현이다.

-너는 ‘빨라’다. 너의 땅은 법적으로 ‘결혼한 여자’다. 하나님의 소유권을 결혼이라는 법적인 형태로 선포하신 예언이다. 하나님의 사랑은 두가지 모두를 의미한다. (이상적이며 현실적이다.)

- 일단 크리스마스는 ‘헵시바’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하다.
-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.

6-7절 말씀은 경건한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다.

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

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

-그들은 파수꾼과 같다. 주야로 기도하며 잠잠하지 않고,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.

-너희는 쉬지 말라;경건한 자들이 기도의 촛불을 끄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.

-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. 하나님께서도 열심히시니, 너희도 열심을 잃지 말라.

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

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

-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마시리라;공의. 뿌린대로 거두리라. 경건한 자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리라. 그들을 형통케 하리라.

-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, 그 뜰에서 마시리라.

-10절 말씀은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이다.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. 큰 길을 수축하라. 돌을 제하라.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!

-교회의 사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.

10절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말씀이다.

이 말씀이 우리교회에,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
라. 아멘.

